



이종범 최희섭 김상훈 이현근 윤석민 안치홍

고졸신인 안치홍 첫 올스타 영예

이종범·최희섭 등 KIA 선수 6명 뽑혀 '타격기계' 두산 김현수 역대 최다 득표

'타격기계' 김현수(두산)가 역대 올스타전 최다 득표로 '별들의 잔치'에 초대받았다. 김현수는 지난 5월26일부터 7월12일까지 48일간 전국 야구장과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실시된 올스타전 베스트 10 인기투표에서 76만1천290표를 얻어 역대 최다 득표 선수로 선정됐다.

이번 올스타전 투표에는 지난해(120만4천398표)보다 16% 증가한 140만1천532표가 집계돼 2년 연속 100만표를 넘었고 역대 최다 투표수를 기록했다. 올해 올스타전은 오는 25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스타리그는 SK, 두산, 롯데, 삼성 선수로 구성되고 웨스턴리그는 한화, KIA, 히어로즈, LG 선수로 짜여진다. 7주 연속 최다 득표를 이어온 김현수는 76만1천290표를 획득해 지난해 카림 가르시아(롯데)가 얻은 67만8천557표를 넘어 역대 최다 득표 기록을 작성했다. 김현수는 13일 현재 타율 0.364에 103안타, 16홈런, 62타점으로 최다안타 1위, 타율 2위, 홈런 공동 4위, 타점 4위 등 도루를 제외한 타격 전 부문 상위권에 올라있다. 이종범(KIA)은 통산 13번째로 베스트



김현수

10에 선정돼 이만수, 양준혁(이상 12회)을 제치고 역대 최다 베스트 10 선정 선수가 됐다. 이종범은 39세 베테랑의 투혼을 보여주며 올 시즌 KIA의 선전을 이끌었다. '새끼 호랑이' 안치홍(KIA)은 고졸 신인으로는 최초로 1997년 진갑용, 이병규 이후 12년 만에 처음 신인선수로 베스트 10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김현수와 안치홍, 김광현(SK), 최희섭(KIA), 이현근(KIA), 이택근(히어로즈)

등 6명은 입단 후 처음 베스트 10에 뽑혔다. 포 대결이 가장 치열했던 이스타리그 유격수 부문은 박기혁(롯데)이 42만4천721표를 얻어 손시현(두산·40만6천605표), 박진만(삼성·37만6천707표)을 아슬아슬하게 제치고 2년 연속 베스트 10에 뽑혔다. 포지션별 득표 1위 선수는 롯데가 강민호, 김주찬, 조성환, 이대호, 박기혁, 가르시아, 홍성흔 등 7명으로 가장 많았고 KIA가 윤석민, 김상훈, 최희섭, 안치홍, 이현근, 이종범 등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선두 SK는 투수 김광현만 뽑혔고 2위 두산도 김현수와 이종범 두 명 뿐이었다. 히어로즈가 2명, LG와 한화가 각 1명씩이었고 삼성은 베스트 10에 배출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이천수 사우디행 확정

알 나스르 이적 ... 이영표와 맞대결 기대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진출을 추진했던 공격수 이천수(28)가 알 나스르로 이적을 확정했다. 이천수의 원소속구단인 페예노르트(네덜란드)는 13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페예노르트는 이천수를 알 나스르로 이적시켰다"고 밝혔다. 국내 K-리그 전남 드래곤즈와 계약 파동을 일으키고 나서 지난 1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떠났던 이천수는 메디컬테스트를 통과해 알 나스르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됐다. 이로써 이천수는 올해초부터 6개월간 알 힐랄 임대 선수로 뛰었던 설기현(30·풀럼)과 최근 알 힐랄에 입단한 이영표(32)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 3호 한국인 선수가 됐다. 페예노르트는 이천수의 구체적인 계약 조



이천수

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1년 계약했다고 이천수의 매니저가 밝혔다. 이천수는 오는 9월 시작되는 2009-2010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 수비수 이영표와 한국인 '참과 방패' 대결을 펼치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있는 알 나스르는 2008-2009 시즌 10승4무8패를 거두며 5위를 차지한 팀이다. 사우디아라비아 1부 리그는 총 12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부 리그 하위 두 팀은 14개 팀이 참가하는 2부 리그로 강등된다. /연합뉴스



광주시 생체형 친선체육대회 광주시생체형체육협회(회장·김창준)는 13일 염주체육관에서 생체형체육관계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9년도 생체형체육크리스마스 및 친선 체육대회를 갖고 광주생체형 발전방향 모색과 친목을 도모했다. <생체형 제공>

KIA, 장마로 폭 쉬었다 선두계 섰거라

최하위팀 히어로즈·한화 상대 6연전

신예 거포 안치홍·나지완 한방 기대



한방이 승부를 가른다. 지난주 '장마 브레이크'를 맞은 KIA 타이가 목동과 대전으로의 원정길에 올랐다. 서울의 라이벌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와의 홈 6연전이 예정됐던 지난주, KIA는 우천으로 두 팀과 한 차례씩 밖에 승부를 펼치지 못했다. 8일 신예 거포 안치홍과 나지완의 홈런 부를 앞세워 LG를 상대로 6-3의 승리를 누렸던 KIA는 10일 두산과의 대결에서는 9회말 이현근의 끝내기 사구로 3-2의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서재용·윤석민이 마운드에 대기

했던 주말 두 경기가 모두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KIA는 이번주 6위 히어로즈와 8위 한화 이글스, 하위권팀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지만 올 시즌 두 팀과는 만만치 않은 진담승부를 벌이곤 했다. 올 시즌 5승6패로 히어로즈에 열세를 보이고 있는 KIA는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화와도 6승5패1무로 호각지세다. KIA는 3.83의 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SK에 이어 탄탄한 마운드를 과시하고 있지만 '다이너마이트 타선' 히어로즈와 한화만 만나면 평균자책점이 치솟는다.

히어로즈전 팀 방어율은 5.25 한화는 5.15. 홈런도 각각 18개와 21개를 내줬다. 올 시즌 73개의 홈런을 허용했던 KIA 마운드가 두 팀을 상대로 허용한 홈런은 전체 53.4%에 달하는 39개다. 그러나 KIA도 두 팀의 마운드를 상대로 29개의 홈런을 뺏아냈다. 히어로즈전에서 0.225의 타율을 기록하는데 그친 KIA지만 홈런은 11개를 때려냈다. 0.286의 타율을 기록한 한화전에서는 18개의 홈런이 터졌다. 특히 7월3일부터 5일까지 대전에서 열렸던 한화와 주말 3연전에서 양팀은 12개의 홈런을 주고받으며 홈런으로만 22점을 기록하는 등 화려한 한방 대결을 펼쳤다. 이번주에도 홈런이 잘 터지는 목동과 대전구장에서의 경기인 만큼 한 방에 따라 승부의 흐름이 바뀔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중간순위 (13일 현재)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연속
1 SK 47 32 5 0.560 6패
2 두산 43 34 2 0.544 1패
3 KIA 42 34 4 0.525 2승
4 삼성 41 40 0 0.506 6승
5 롯데 41 42 0 0.494 2승
6 히어로즈 37 42 1 0.463 3패
7 LG 37 43 3 0.446 1패
8 한화 28 49 3 0.350 1승

광주대표 황우진 2관왕

세계청소년 근대5종 선수권

전국체전 광주대표 황우진(한국체대)이 2009 세계청소년 근대5종 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황우진은 지난 12일 대만 까오슝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혼성계주에서 양수진과 함께 6천292점을 기록, 리투아니아(6천206점)·우크라이나(6천140점)를 제치고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올랐다. 이로써 황우진은 지난 단체전 우승에 이어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이날 경기에서 황우진은 펜싱과 수영에서 리투아니아에 선두를 내줘 두번째로 출발하였으나 특유의 근성으로 두번의 역전 끝에 1위로 골인하는 후원을 발휘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황우진의 맹활약에

합입어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대성전을 펼쳤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14일(화)

▲2009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 야쿠르트)(17 : 50·SBS스포츠)
▲2009 프로야구(두산 : 삼성)(18 : 10·KBS n스포츠) (한화 : 롯데)(18 : 15·Xports) (KIA : 히어로즈)(18 : 15·MBC ESPN) (SK : LG)(21 : 00·SBS스포츠)

경매 취하 부동산

감정가 15-50%할인 매물

- * 부동산 경매 취하 금액 대납 * (경매 예정 또는 진행 부동산)
- * 부동산 담보 대출 금액 대환 * (대출 은행 또는 개인 차용 부동산)

아파트·단독·다세대 주택·상가·토지

* 경매 취하 부동산 매물 상담 *

* 부동산 재테크 상담 *

공인중개사 백호기 · 감정상담사 박시연 · 투자상담사 최정현

금호부동산컨설턴트

☎ 062)224-5959 FAX 062)223-5151

작은만남 큰기쁨
광주일보 전철편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독자 서비스국(062)220-0531	현정이네칼국수 서구 화평동4거리 화평교차로 회백재센터앞 칼국수전문 즉식배달 대표 이길연 ☎(062)374-5111	신세계익스프레스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맞은편 포장이사, 일반이사 전문업체 대표 최성진 ☎(062)261-2479	맘포퓰터 동구 출정로3가 총파암 데비디삼지하 라린댄스, 살사, 차차, 비하리, 살사동호회 회원수시모집 ☎(010)5136-0028	구궁(옛)고궁 남구 봉선동 광주은행4거리 수협 뒤 떡갈비, 전복식당, 김밥점식전문 대표 이 승 ☎(062)672-5075
신용인력서비스센터 남구 박은동 백운교차로 광주은행3층과2층 양아강, 양수정, 선영일, 양재호, 양영준, 양영규 초·경험자 환영. 배민전세실. 배민학원. 배민이력 ☎(062)681-7770	광주교원신협 동구 계림동 남도정래식장앞 정기예금특약(500만원이상) 한시적1년4.6% 6개월4% ☎(062)223-9696	무진주디자인기획 남구 방림동 도개비정역 각종인쇄물, 디자인제작, 간판제작, 선거기획 정지광고, 포스터 광고전략 ☎(062)675-0227	김밥천국 동구 출정로3가 총파암 데비디삼지하 냉면, 김밥, 떡볶이, 떡갈비, 떡볶이, 떡갈비 대표 김 순 희 ☎(062)226-8231	행복한피부 동구 출정로3가 총파암 데비디삼지하 특수원4회10만원 일반원4회7만원 비만관리, 여드름관리, 남성환영 ☎(062)222-9537
본추어탕 서구 치평동 시의회앞 추어탕전문, 추어탕, 추어탕, 추어탕 대표 이 재 욱 ☎(062)372-7579	녹동얏바다 서구 금호동 부영105동사이 자연산바다장어정식 술불구이전문 ☎(062)652-0103	송원갈치조림 서구 풍암동 윤리중정면 건너편 뒷골목 갈치조림, 회, 찜, 생선전문, 각종음식, 약방 대표 김 은 욱 ☎(062)652-5528	창조의아침미술학원 동구 금남로2가 우리빌딩13층 미술학원 원장 신 도 원 ☎(062)228-3701	화석시대(진원점) 남구 진원동 대주@건너 5-애원 돌관리, 돌관리, 돌관리, 돌관리 대표 문 한 성 ☎(062)676-2340
토방도토리음식전문점 광안구 신창동 부영3차 건너편 도토리초밥, 정반국수 도토리갈비, 수제비 ☎(062)956-5877	양반왕족발보쌈 남구 주월동 하이마트 맞은편 족발, 보쌈, 족발, 보쌈, 족발, 보쌈 앞다리, 생도육사용 전회주문시 신속배달 ☎(062)675-8858	주몽반점 서구 풍암동 풍암4거리 중화요리전문 신속배달 세트메뉴판매 대표 박 경 속 ☎(062)651-4884	효죽우체국 북구 우산동 동신고 육교건너 성실서비스 국장 손 수 욱 ☎(062)525-1050	삼오떡볶 동구 금남로3가 카톨릭대 뒷골목 시원재료의 모든것. 맛있게, 신선하게 각종 스트로브레경 ☎(062)224-3575
녹동얏바다 서구 금호동 풍암4거리에서 부영@쪽 녹동얏바다 신식 배달이 술불구이전문 대표 이 재 욱 ☎(062)652-0103	컴퓨터&인크 서구 염주동 태영@상기1층 컴퓨터출력A3, 인크로너, 색인기, 프린터 무한인크, PC조립, 컴퓨터, 웹, 네트워크, 프린터 ☎(062)671-1891	통일각바자락칼국수 서구 풍암동 풍암4거리 선교교회앞 중화요리, 바자락칼국수, 콩국수, 전이생배달 단체 손님환영 ☎(062)681-0046	구례식당 북구 우산동 동강대학교 바로앞 갈치조림, 동태찌개, 김치찌개, 백숙전문 대표 장 정 순 ☎(062)529-0071	남원추어탕 광안구 쌍림동 쌍림공원 정문앞 추어탕, 매생이탕, 해물, 모듬탕 대표 김 백 혁 ☎(062)972-3824